

베트남 외무장관 방북...김정은 예방 가능성도

2차 북미정상회담 전 김 위원장 국민방문 주목 성사 시 1958·1964년 김일성 주석 이후 처음

팜 빈 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북한을 방문한다. 이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28일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 전에 베트남을 국민방문해 응우옌 푸 쩡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별도의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와 달리 김 위원장이 베트남 현지에서 광복행보를 보일 수도 있다.

레티 투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초청으로 민 장관이 12~14일 북한을 공식 방문

한다"고 밝혔다.

향 대변인은 다만 민 장관의 방문 목적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민 장관은 12일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다.

민 장관은 리용호 외무상 등 북측 인사와 만나 김 위원장 방문의 구체적인 일정, 숙소, 의전 등 세부적인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국민방문 가능성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4일간 리용호 외무상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한 이후부터 외

신들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지난 1월 17일 로이터통신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베트남 수도 하노이가 김정은 위원장의 국민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통신은 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 시점을 '설 이후' 로만 전망했다. 따라서 베트남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국으로 확정되면 방문한다는 것이지, 아니며 북미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베트남을 방문한다는 것인지 모호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이 북미 정상회담과 연계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베트남 외무장관의 방북을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2차 회담 준비 차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에도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정상회담 개최 닷새 전인 2018년 6월 7일 베이징에서 고려항공을 타고 평양을 방문했다가 9일 귀국했다.

1차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은 회담일보다 이를 전인 6월 10일 현지에 도착해 당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양자회담 및 만찬을 가졌다. 당시 양자회담에는 리용호 외무상과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이 배석했다.

따라서 만약 김 위원장이 1차 정상회담 때와 비슷한 일정을 켜면, 2차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25일쯤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해 응우옌 푸 쩡 서기 등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 체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외에 리셴룽 총리와와 비공개 회담 및 만찬, 그리고 회담 전날인 6월 11일 발라크리쉬난 외

무장관과의 '깜짝 반상책' 정도의 스케줄만 소화하고 숙소에서 두문불출했다.

하지만, 북한에게 베트남은 싱가포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이번에는 현지에서 경제 관련 시설을 둘러보는 등 광복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이후 만 54년 만이다. 김 주석(당시 당중앙위 위원장·수상)은 1958년 11~12월에 첫 국민방문(월맹방문)해 호찌민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당시 북한이 펴낸 자료에 따르면, 김일성 주석은 북한에서 기자로 중국까지 가는 기자로 이동하고, 중국에서 베트남 하노이까지는 비행기를 이용했다. 김일성은 1964년 11월에 또다시 하노이를 방문해 호찌민 주석과 만나 2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뉴스

“화웨이 사용 국가와 협력 곤란” 폼페이오, 유럽 순방 중 경고

유럽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의 통신장비제조업체 화웨이 설비를 설치하는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11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은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를 방문하는 동안 기자들에게 "만약 화웨이 장비가 미국의 중요한 시스템이 있는 곳에 배치될 경우 미국은 그런 곳들과는 협력관계를 맺기 어렵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우리는 그들(유럽국)들에게 장비 사용의 기회와 위협을 알려주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화웨이와의 협력을 계속한다면 미국은 특정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이것(화웨이 위협)을 그들과 공유할 의무가 있고,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문은 중국, 러시아 쪽으로 기울어지는 동유럽 국가들을 미국 쪽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의도에 따라 이뤄졌다. 그는 헝가리 일정을 마친 뒤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헝가리 측에 우크라이나를 가로질러 유럽으로 이어지는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에 개입하지 말 것도 촉구했다.

한편 헝가리 통신 장비의 70%는 화웨이 장비이고, 화웨이는 국영기업을 포함해 대부분의 통신 사업자와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중국군, 美군함 남중국해 작전에 '경고'

"지역 평화안정을 해쳐"… 충돌 위험성도 ↑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국 군함 2척이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島 스프래틀리) 인공섬 주변 해역에 진입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강행한데 대해 도발이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중국군망(中國軍網)이 12일 보도했다.



중국 군함이 지난 9월 30일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의 일환으로 항해하는 미국 군함의 뒤를 추격하는 모습.

매체에 따르면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인민해방군 남부전구(南部戰區) 대변인 리화민(李華敏) 대교는 전날 미국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 스프루언스와 프레블이 난사군도의 메이저자오(美濟礁 미스치프 암초), 런아이자오(仁愛礁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서 20km 이내 해역을 무단 침범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도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 군함들이 남중국해 중국 영해를 무단 침입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리화민 대변인은 당시 남부전구가 해공군 병력과 수비부대를 동원해 미국 군함들을 추격 감시하는 한편 식별조사를 실시하고서 즉각 퇴거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이들 미국 군함이 중국 주권을 침범하고 남중국해 해역의 평화와 안전, 질서를 훼손 파괴했기 때문에 강력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스프루언스함과 프레블함의 도발 행위는 중국 법규와 유관 국제법을 위반하고 중국 주권을 침범했으며 지역 평화안정을 해치는 것이라고 리화민 대변인은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국제법에 따라 각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존중하고 지키겠지만 이를 구실로 자국의 주권과 안보를 해치는 데는 결단코 반대한다고 언명했다.

리 대변인은 중국이 런아이자오와 메이저자오를 포함하는 난사군도와 주변 해역에 대한 다를 여지없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에 유사한 도발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에 메이저자오와 런아이자오를 포함한 난사군도는 물론 남중국해 다른 암초와 인공섬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이들 영해에 침입하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

아울러 남부전구는 미군의 관련 해상과 공중 정황을 엄밀히 감시 통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 결단코 국가 주권과 안전보장을 지키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는 미국과 예기치 않은 충돌을 벌일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뉴스



알래스카의 북극지역 야생동물을 피난처.

알래스카 야생피난처에 석유개발, 앵커리지서 반대시위

원주민·환경단체들 “수익보다 훼손 피해가 더 클 것”

알래스카의 삼림 손실에 의지해서 먹고사는 원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9일(현지시간)부터 이 곳 북극해변 평원의 야생동물 피난처 내에서 석유를 개발하려는 연방정부의 계획에 반대하기 위해 앵커리지의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 외에도 환경단체들과 기타 반대 세력들은 11일(현지시간)에도 시내 토지관리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시위를 계속한다. 이곳은 국립 북극야생동물 피난처의 해안지대 평야에서 시행할 석유사추계획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당국이다.

2017년 12월 미 연방 의회는 도널드 트

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감세정책의 수행에 따라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 지역에 석유와 천연가스 발굴 사업을 허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대자들은 이 곳의 야생동물 피난처를 개발하는 것은 개발이익과 야생환경 보존문제를 두고 장단점을 따져서 입장을 해야 한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공유지의 판매로 연방정부 금고에 들어올 세금 수익이 기껏해야 향후 10년간 10억 달러에 불과하다며 비웃었다.

그 뿐 아니라 이 곳을 개발하게 되면 유전들과 연결되는 도로망과 송유관 망이 거미줄처럼 건설되어 야생동물 피난지역 전체에

서 애초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면적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 곳 해안 평원은 포큐핀 강 이름의 탄 포큐핀 카리부(삼림 순록) 무리의 서식지로, 캐나다에서 약 20만 마리의 순록 때가 알래스카 북동부 끝의 브록스 레인지 산맥과 북극해 사이의 평평한 툰드라 지역으로 몰려오는 길목이다. 이곳 국립 북극해 야생동물 피난처는 1960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정부가 만든 곳이다.

이후 1980년대에 의회가 피난처의 넓이를 2천300평방마일이나 넓히면서 거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맞먹는 면적으로 늘어났고 북극해안 평원지대에 대한 천연자원 연구의 대상지가 됐다. 뉴스

美남부침례교, 성비리 파문

1천500만명 이상의 신도를 가진 미국 최대 신교도 교파 남침례교에서 대규모 성비리 사건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고위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 380여명이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7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텍사스주 대형 언론사들인 휴스턴 크로니클과 샌안토니오 익스프레스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여년간 7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확대를 당했으며, 일부는 낙태를 경험했다. 여러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합의를 중용받기도 했다.

목사, 집사, 주일학교 교사, 자원봉사자 등 380여명이 성비리에 가담했으며, 이중 220여명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 220명 중 90명은 현재 복역 중이며, 100명은 성범죄자로 등록돼 있다. 남부침례교는 4만 7천여개의 자치 교회들이 모여 있으며, 중안교단의 통제력이 약한 편이다. 실제 남부침례교는 지난 2013년 아동 성학대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뉴스

부동산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100
- B형 : 83×50 - C형 : 126×50

윤슬의 아침_나주

명품 전원주택단지 분양

총 33 필지 기반 조성중! 061.334.3040

(주)디디하우징 최고의 조망, 숲세권!! 동신대 한의학관 바로 옆

UO work

중개비용 성과가 되는 권 보종금/관리비 0

유요워크 금납점 최대규모 24시간 운영!!

소호사무실 입주사 모집

- 특장점
- 보종금, 관리비(전기세, 수도세) 없음
- 최고급 인테리어, 사무집기 무료제공
- 무인 우편, 택배 보관 가능 ● OA기기, 회의실 이용 무료
- 사업관련 제휴업체 연계(세무, 법률 등)
- 카세어링 서비스 ● 생체인식 보안시스템
- 사무장 ● 주차장 ● 산소발생기

UO work 금납점 Tel. 1800-5711
광주 동구 금남로 193-22 (금남로4가역 4번출구 2분거리)

생활정보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75 - B형 : 40×75

캠핑카 주문제작·판매

푸드트럭제작 가능!

중고차 수입·합동 승용·합동 최고가 매입!

대한민국 최저가로 제작·판매 합니다!!
광주 서구 매월로 63번길 11

(주)기가찬 H. 010-8647-3457 ☎ 062) 651-0075

보증보험 가입업체 관허 97호 ◆ 20층 장비 보유 ◆

포장이사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업체는 전 직원이 경력자로서 최상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님의 물건을 안전하게 운반해 드립니다.

한국어든 일반 가능 062)522-2424 전라권 지역 061)375-8824

※ 견적은 무료이며 이사장님이 직접 방문 ~ 절대 웃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업체 - 분심파수시 재정부장부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의함 / 관허 124호

LG 익스프레스

이사 마무리시 스템청소 서비스

- 선반 · 가구 · 싱크대 · 냉장고 청소
- 블라인드, 버티컬 탈부착 무료
- 2층~22층 사다리 보유
- 전국 체인점망 구축
- 에어컨 이설, 피아노 운반 전문

전국 어디서나 문의 080-925-1234, ☎ 572-8900